

식중독 세균 '리스테리아' 주의

가열 조리하면 사라지나 노인 등 면역력 낮은 계층에서 감염될 확률 높아 농진청, "어린잎 채소 비롯한 신선 채소 생산단계부터 관리 철저"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겨울철 '리스테리아'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잎 채소를 비롯한 신선 채소의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10일 당부했다.

리스테리아는 저온(5도에서도 증식될 수 있는 세균이지만, 100도(°C)로 가열 조리하면 사라지고 건강한 성인이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임산부, 신생아, 고령자 등 면역력이 낮은 계층에서는 감염될 확률이 높아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판홍(상토)를 이용해 어린잎 채소를 재배할 때는 반드시 생산업자 보증 표시를 확인하고,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농진청은 모판홍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비료 공정규격 및 지정'에 식중독 세균인 리스테리아를 유해성분으로 설정해 관리토록 조치했다.

또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농업용수의 식중독세균

오염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작업자는 작업 전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장갑과 작업복을 착용한 뒤 작업해야 하며, 장갑과 작업복은 매일 세탁해야 한다.

어린잎 채소를 수확한 뒤에는 재배했던 묘판의 흙을 물로 깨끗이 제거하고, 200피피엠(ppm) 차아염소산나트륨에 10분 이상 담근 다음 물로 충분히 헹구어 햇볕에 건조시킨다. 수확용 같은 수시로 70% 알코올로 소독해 사용한다.

가정에서는 어린잎 채소를 섭취하기 전 충분히 세척하고, 세척한 어린잎 채소는 4도(°C) 미만의 저온에서 보관한다. 세척한 어린잎 채소를 4도(°C)에 보관했을 때는 리스테리아가 증식하지 않았으나, 10도(°C)에 놓아두었을 때는 3일 만에 리스테리아가 100배 증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류경열 팀장은 "저온성 식중독 세균인 리스테리아를 예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며 "가정에서는 신선 채소를 충분히 씻어 먹고, 실온에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협력”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10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광역시 대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의 업무협약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미인증 제품 친환경 표시금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전북농관원, 이달부터 시행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은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로 제조·가공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제'와 친환경인증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등의 행위 금지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10일 밝혔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50% 이상)이나 유기식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는 과거보다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인증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생산자는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친환경인증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광고가 금지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 표시뿐만 아니라 '친환경' 문구 또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업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전북농관원 정수경 지원장은 "이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과 친환경 문구 표시·광고 금지 등 인증 표시 기준 강화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과 친환경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북전주농협, '사랑의김장 나눔'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10일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지난해까지는 관내 부녀회, 농가주부 모임, 늘사랑봉사단 등 여성조직 회원들과 함께 김장을 담아 왔다.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김장 담그기 행사는 취소하고 진안 부귀농협 마이산김치 공장에서 10kg의 김장김치 165박스를 구입해 관내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등에 130여 곳에 전달했다. /김윤상 기자

착한임대인에 정책 자금 지원·무상 전기안전점검

전북중기청, 내년 6월 말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하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소상공인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북지방중기청은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된다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기간 내 임대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여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 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으로 확인되면 된다. 자금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를 통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전북중기청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업으로 전북지역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150개(신청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오늘부터 내년 6월말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착한임대인'으로 확

인되면 내년 12월까지 영업주와 점검일정을 협의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현장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 11월 발표한 '소상공인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에는 임대료 인하여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기한을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전동시장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대기업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 지수' 평가에 반영,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 등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안남우 청장은 "전북은 전주축 착한임대인 운동이 전국적 확산의 불이 쏠려진 모범 지역"이라며 "어려운 가운데 임대료 부담완화에 동참해 주신 착한임대인에게 감사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취업지원제도 활용 장애인 채용 '앞장'

LX, 'GO GO 패키지'

배출 4명에 임용장 수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김정렬)가 장애인 취업지원 제도를 활용해 장애인 채용에 앞장선다.

LX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와 협약을 통해 올해로 2회째 진행하고 있는 '함께 일하는 LX GO GO 패키지(훈련반GO, 자격파GO, 일자리 찾GO)'에서 배출된 장애인 4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임용자들은 지난 9월 모집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에서 약 1개월간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이날 채용됐다.

'함께 일하는 LX GO GO 패키지'는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현장학습 등 맞춤형 훈련을 시행하고 수료자를 채용하는 LX만의 장애인 취업지원 제도다.



LX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와 협약을 통해 올해로 2회째 진행하고 있는 '함께 일하는 LX GO GO 패키지'에서 배출된 장애인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오래리 경영이사는 "LX에서 국민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면서 자기 계발에도 소홀히 않고 노력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LX는 지적관련 자격증이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지원 등 지적측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맞춤형 취업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코로나19 위기에 맞설 것”

임용택 전북은행장, 창립 51주년 비대면 기념행사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사진)은 1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창립 51주년 기념행사를 비대면 사내방송 형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립기념식을 통해 전북은행은 은행 핵심사업 고도화, 영업기반 강화, 영업채널과 인력 효율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디지털 혁신, 경기하강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및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은행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다짐했다.

임용택 은행장은 기념사에서 “올해 전 세계가 상상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서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 대면영업 축소, 지역경제 침체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었지만, 전 임직원들이 헌신일체 되어 노력한 결과, 다시 한 번 최고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등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은행의 자존심을 지켜냈다"며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자신감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 아래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에 당당히 맞설 것"을 강조했다.

전북은행은 지난 1969년 창립 이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가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확대해 오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은행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한 각종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 클러스터 '우뚝'

전북생진원, 지역혁신 육성 전국 4대 우수사례로 약용작물 스마트팜 사업 모델로 균형발전에 기여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생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수행한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은 국정과제의 중점 프로젝트로, 생진원은 전북농생명연구협의체 참여 혁신기관 및 선도기업 등과 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주도 약용작물 스마트팜 사업모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전국 4대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약용작물의 재배환경데이터, 생육데이터 및 농작업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이 최적화된 재배모형으로 작물을 생산하고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화장품 등 고부가 제품으로 사업화하는 것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국내산 농산물을 통해 기업 매출증대, 지역내 고용 창출 및 농가 소득향상 등 지역 동반성장에도 핵심목적이 있다.

생진원은 2018년부터 혁신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정읍분원)과 선도기업인 리퓨터와 함께 약용작물 스마트팜 사업을 수행해 매출(수출포함) 44.5억 원과 고용 24명의 성과를 도출했다.

또한, 익산시·김제시·순창군과 약용작물 스마트팜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농생명 예측정보 클라우드 플랫폼" 협약을 맺는 성과도 창출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시장 개척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부온마트론 대학 스마트팜 구축을 시작으로, 중국, 인도 등지의 무역상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 국가에도 스마트팜을 보급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작물 생애주기 관리 플랫폼을 아시아 국가에 보급해 아시아의 스마트 농생명 벨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김동수 원장은 "미래의 스마트농생명 산업의 핵심은 빅데이터 수집과 데이터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연말부터 수행하는 후속사업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사업(27개월, 45억 원)에서는 약용작물의 부가가치 고도화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플랫폼 수출 및 보급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기여 '인정'

전북대 송제호 산학협력중점사업단장, 중기부장관 표창

전북대학교 송제호 산학협력중점사업단장이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상식은 이날 제2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송 단장은 1996년 전북대 교수로 임용된 이후 전자 및 통신시스템 분야에서 연구활동과 인재양성에 매진해왔다.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산업성을 위해 실용적 연구에 주력하고 이를 산업현장에 적용·기술이전하는 등 산학협력 활동을 전개해오며 관련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송 단장은 전북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공학컨설팅센터장, 전북산학협력회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자동차산학협력원장 등을 역임하며 산학협력 R&D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기업체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현장 실무능력 및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 산업인턴 지원체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사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력신형 기술개발사업의 호남권역 운영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송제호 단장은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대학과 중소기업간 상생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구축해 전북대학교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